

# “협회 역량 강화에 역점 둘 터”

■ 김인숙 기자 (kis@energycenter.co.kr)



**지난** 3월 우리협회 경기흥회에서 세광에너지의 양홍정(구, 承禔) 대표이사가 신임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흥회를 통해 임원진이 대폭 보강됨으로써 ESCO협회의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양홍정 신임 부회장을 만나 앞으로 협회운영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들어본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신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규나 제도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바람직한 ESCO사업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ESCO들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회원사 제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ESCO사업 관계자들이 거는 기대가 크데 재임기간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협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유업무의 발굴과 정부허가사업을 시작으로 위상을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다른 임원진 및 회원사들과 주어진 임기동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를 중심으로 ESCO들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제도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ESCO협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ESCO와 ESCO사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가 ESCO의 양적 확대에 비중을 두었고, 그 결과



협회를 중심으로 ESCO들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제도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ESCO협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130개가 넘는 ESCO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ESCO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그중 40여개사에 불과한 게 현실이고 업체난립에 따른 저가입찰경쟁은 부실시공 및 자재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ESCO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간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등록업체가 정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세광에너지는 최근 EM인증을 받은 무전극램프로 조명업계의 틈새시장을 공략, 다른 ESCO들과의 차별화를 기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건개되는 세광에너지의 ESCO사업내용과 근황을 소개해주신다면요?**

타 제품에 비해 고가임에도 수명면에서는 반영구적이라 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무전극램프를 주력으로 올해 약 15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최근 진단 및 계약을 마친 LG 전자 구미공장을 비롯, 2003년까지 시행되는 전국 이마트 조명교체 ESCO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절감효과가 검증되면 그룹 전체로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기대되는데 최근 청주공장에도 샘플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터널등과 같이 옥외설치에 타깃을 두고 보급화할 계획이며, 안산톨게이트의 사업수행결과 연색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터널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전시와도 각각 가로등과 주택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무전극램프를 이용한 신호등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는 자본금의 약 27%를 차지하는 해외자금을 유치했는데 내년 하반기쯤엔 코스닥에 등록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업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나름대로 갖고 계신 에너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인으로서, ESCO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산업 분야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중 하나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에너지절약산업에 임한다는 생각입니다. e

